

11월의 기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DCEM 성회안내

2017년 11월 3일 일본 오사카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축복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금란, 정경자,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함석숙, 최인철, Michelle McQueen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최고의 만남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었지만, 옛새밖에는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옛새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장에서 죽이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성홍열과 뇌막염으로 평생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헬렌 켈러는 항상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복합 장애 때문에 삶에 절망과 좌절이 넘쳤을 텐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까요? 그것은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번 선생님과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아인 헬렌 켈러를 어릴 때부터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서전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설리번 선생님과과의 만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남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어떤 형제이든지 어떤 친구이든지 어떤 스승이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야훼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과 생활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순복음오야마교회 축복성회

순복음 신앙 열정으로 '일본일천만구령'에 충성합시다
 앓을 자리 없어 성전 창문 출입문 모두 뜯어내
 성령충만한 참된 예배자로서 적극적 헌신 다짐



일본 도쿄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도시, 오야마. 농업과 공업 중심인 이곳에 유일한 교인 교회는 순복음오야마교회(담임 강은택목사)뿐이다. 지난 9월 20일 오전 순복음오야마교회 성도들은 성전 단장에 한창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오야마에 처음 방문해 '은혜와 기쁨의 성회'를 인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교회 측은 한명이라도 더 성전에 들어오도록 장의자를 치우고 방석을 깔았다. 자리는 너끈히 2배가 됐다. 하지만 성회 시작 한참 전부터 성전은 성도들로 가득 찼다. 급기야 교회측에서는 성전 출입문을 떼고 치워두었던 장의자를 설치했다. 역시 자리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성전 창문을 떼었다. 사람들은 창문 너머 고개를 내밀고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였다. 마치 서대문시절 우리 교회를 보는 듯 했다. 지나가던 이들도 갑자기 벌어진 진풍경을 신기해 하며 교회를 응시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날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본문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든 뱀뱀을 본 자마다 병이 나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인자

(예수님)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기독교의 구원은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뤄진다”며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 용서,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폐병으로 죽을 목숨이었던 자신이 구원받고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중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조용기 목사는 “이제 일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 일천만 구령’의 역사를 위해 순복음오야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의 설교 후에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질병, 저주,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축복성회는 강은택 담임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실이었다. 성도들은 40일 동안 기도하며 이

날 성회를 기도로 준비했다. 그리고 ‘순복음의 불같은 신앙열정’을 이어받아 오야마 나아가 일본 전역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길 소원했다.

이번 성회는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주관으로 열렸으며, 순복음일본총회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일본어로 통역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도 참석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중보했다. 제자인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와 무용단도 함께하여 아름다운 찬양 울동을 선보였다. 또 조용기 목사의 성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목회자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은혜를 받았다.

순복음오야마교회는 현재 한인과 일본인이 50대 50 비율로 출석해 순복음의 제자들로 양육되고 있다. 강은택 목사는 “오늘 성회를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았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야마순복음교회에 재현되길 기도한다. 이 열정으로 오야마를 비롯하여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십자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변화의 원동력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범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더 악한 양상을 띠니다. 교육이 사람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어도 속사람 즉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또 법이나 공권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잠시 제한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통업체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꿈을 꾸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화를 향한 꿈과 소원이 있어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변화될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사

라고 믿으면서도 삶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삶에 적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남을 착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은 정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정부로부터 받은 조세 징수권으로 동족에게 혈세를 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정정당한 세금만 거둬서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둠 속에 살던 그에게 생명의 빛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여기고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삭개오는 질투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눅 19:5)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누가복음 19장8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생각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강변에 난지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난지도는 난소와 지초의 섬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꽃이 많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되고만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기에 심

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없이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려 죄악을 청산하해주셨습니다.

3.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가에서 사는 광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려 무덤가에 살면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밤낮 소리를 치고, 돌로써 자기를 쳐서 상처를 입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인을 만난 후에 그 광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군대 마귀가 뛰쳐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덤가의 광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낮 고통을 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웃을 위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독수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 해도 실제 절벽에서 뛰어 내려서 실천해 보지 않으면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평생 날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오종복음을 알게 되면, 영혼이 잘 믿고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사카 축복성회



오사카는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2대 교통 중심지이다. 신칸센(新幹線)을 비롯하여 철도·지하철·도로가 발달하여 교토[京都]와 나라[奈良]·고베[神戸] 등 인근의 도시 및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다. 오사카에는 교토·나라 등의 인근도시에 비해 관광자원은 많지 않으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인 만큼 유적이 많다. 오사카성(城)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의 하나인 시텐노사[四天王寺], 일본의 3대 민속제전의 하나인 천신제(天神祭)로 유명한 덴만궁[天滿宮] 등의 사찰·신사(神社)가 있다.

일본의 기독교(영어: Christianity in Japan)는 일본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전도 활동에 제한 없이 오늘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의 교파로는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이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많으면 300만 명의 일본의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기독교는 수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로 갈라져 있다. 일본 교회의 70%는 평균 착석률이 30명도 채 되지 않으며 등록된 성도 수는 그 두 배 정도 된다.

이러한 영적 불모지인 일본을 향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사랑은 각별하다. 1976년에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는 일본 선교에 매진해 왔다. 일본폴가스펠교단(산하 약 90여개 교회)에서 순복음동경교회 다음으로 큰 교세

를 자랑하는 순복음오사카교회는 지난 2015년 정대원 담임목사를 맞이했다. 취임식 감사예배 강사로 초청되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정대원 목사님이 오사카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 목사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라며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오는 11월 3일 오사카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축복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번 축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사카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의 역사가 오사카순복음교회를 통해 일본 열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일본의 기독교 이해

일본의 기독교(그리스도교)는 불교보다 훨씬 늦은 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1506~1552)라는 선교사에 의해 전래되었다. 규슈와 주고쿠 지방의 다이묘 가운데서 양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나 무역상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17세기 초에는 신자수가 약 70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 수는 오늘날 일본 전체의 크리스트 교파의 신자 수에 육박하는 정도로, 당시의 인구가 현재의 6분의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보다 신을 존중하는 것이 두려워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 신국(神國) 일본에서의 사악한 종교의 포교를 금지하고 나가사키를 몰수해버렸다. 이때부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어 1597년에 일본 최

초의 기독교 순교인 이른바 26성인의 순교가 일어났다.

또한 에도 막부도 1612년 금교령을 내려 근세 쇠국하에서 기독교는 완전 금기시되어 버린다. 그 후 근대 들어 1873년 구미제국의 요구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금교를 해제하자 가톨릭, 개신교, 러시아정교의 선교사가 들어와 활동을 개시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된다.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어 온 기독교는 서구화·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일본에서 다시 포교활동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은 선교활동 이외에, 사회사업과 교육사업도 벌여 서구문물을 일본에 전파하게 된다.

당시 서구세력 앞에서 근대화를 통해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꾀하고자 하였던 일본은, 정신은 일본에 바탕을 두고 기술은 서양에



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흐름과 신불분리를 통한 신도국교화 등으로, 사실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일본 내에서 정착하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범선민적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인 기독교 교리는 쉽게 수긍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전세계 인류의 3대 신앙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나, 일본의 기독교는 전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신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많은 그리스도 인구의 부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